

광주·전남 고교생 고도비만 2배 급증

교육부 ‘학생 건강 검사’ 분석

男 고3 10년째 174cm ‘넘사벽’

고교생 절반 “6시간도 못 잔다”

광주·전남 고 3 남학생들의 키는 조금 컸는데 몸무게는 확 늘었다. 광주·전남 고교생의 고도 비만율도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6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분석’ 결과다.

◇몸무게만 쑈욱=광주 고 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3cm. 5년 전인 2011년(173.2cm), 10년 전인 2005년(174.4cm) 등으로 조사됐다. 키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자고 나면 커 있더라”는 옛 어른들 말과는 사뭇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 고 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995년 171.0cm ▲2000년 173.0cm ▲2006년 174.6cm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73.0cm ▲2015년 173.1cm 등으로 유지하는 추세다. 전국 고 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5cm였다.

광주 고 3 여학생의 지난해 평균 키는 160.0cm. 2011년(161.1cm), 10년 전인 2006년(161.3cm)보다 작아졌다. 161cm는 남을 수 없는 ‘벽’으로, 2008년(161.7cm)이 최고치였다.

전남지역 고 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6cm, 여학생은 160.2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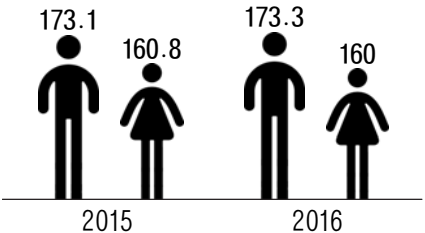
성장세가 둔화된 키와 달리 몸무게 변화는 급격했다.

광주 고 3 남학생의 지난해 평균 몸무게는 70.9kg, 전년도(67.1kg)보다 2.8kg 늘었고 지난 1993년(63.0kg)에 견줘 7.9kg이나 뛰었다. 70kg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남 고 3 남학생도 69.2kg으로 전년도(66.9kg)보다 늘어났다. 전남 고 3 남학생 몸무게도 20년 동안 가장 무거운 수치다.

광주 고 3 여학생 평균 몸무게는 56.0kg로 2014년과 같다. 전남 고 3 여학생은 58.2kg으로 56.5kg(2015년)였다.

고도비만 학생 비율도 크게 늘었다. 광주 고등학생 중 고도비만 학생 비율(3.6%)은 전년도(1.6%)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전남도 고교생 고도비만 비율이 3.2%로 전년도(1.9%)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 고3 평균 키



광주 초·중학교 비만학생 비율도 초(2015년 13.9%→2016년 15.6%), 중(2015년 13.6%→2016년 14.2%),고(2015년 17%→2016년 19.4%) 등으로 각각 늘어났다.

20년 전 보다 먹을 거리가 많아졌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패스트푸드 등 식습관이 나빠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식습관은 나빠지고=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광주·전남의 경우 초등학생(63.1%), 중학생(78.2%), 고교생(남자 84.1%) 등으로 전년도(초등 61.9%, 중등 75.6%, 남자 고교생 81.5%)에 견줘 크게 늘었다. 3년 전인 2012년(초등 50.7%, 중등 63.7%, 남자 고교생 66.2%)에 비교해 월등히 높다. 전남도 초·중·고교생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늘었다.

지난해 1주일에 한번 이상 라면을 먹는 광주 중학생(88.9%), 고교생(78.9%) 비율도 전년도(중등 87.8%, 고등 75.9%)보다 높아졌다. 전남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 먹는 비율(80.8%)이 전년도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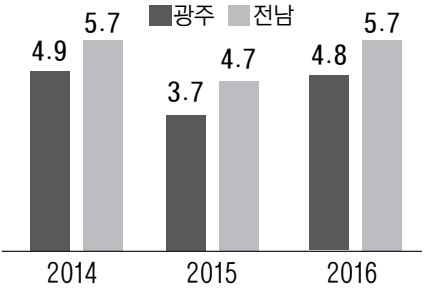
광주·전남에서는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초등학생(광주 4.8%, 전남 5.7%)이 전년도(광주 3.7%, 전남 4.7%)보다 많아졌다. 광주 남·여 고교생 채소 섭취율(남자 18.8%, 여자 22.3%)은 전년도(남자 22.2%, 여자 20.6%)보다 많아졌다.

◇제대로 못 자고 게임량은 늘고=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 등을 즐기는 학생 비율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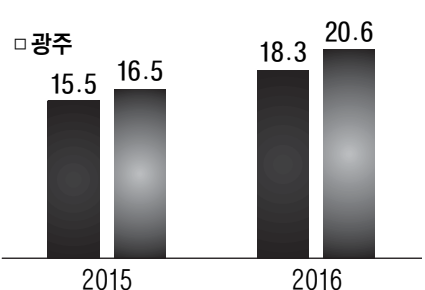
광주의 경우 초등학생은 전년도 15.5%에서 18.3%로, 고교생은 16.5%에서 20.6%로 늘었다. 전남도 초등학생은 20.1%, 고교생 19.0%로 전년도(초등 15.6%, 고등 17.7%)에 견줘 증가했다.

수면 시간도 줄었다. ‘하루 6시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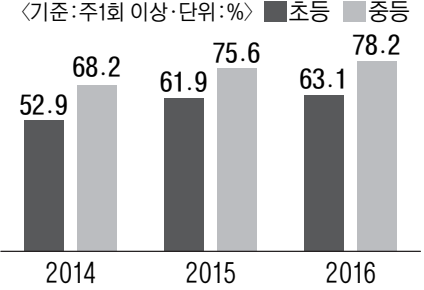
■아침 거르는 초등생 비율



■1일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 이용률



■광주 학생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이 키를 재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잔다’는 전남 고교생은 2015년 44.7%에서 지난해 46.0%로 늘었고 광주도 44.1%(2015년)에서 47.1%로 늘었다.

최근 1년간 파도림을 경험해본 비율을

묻는 조사에서는 광주·전남 모두 중학교 지난해 46.0%로 늘었고 광주도 44.1%(2015년)에서 47.1%로 늘었다.

최근 1년간 파도림을 경험해본 비율을

국립대 연구 역량 강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수회는 아울러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 ▲사립대 비리에 대한 국가 감독기능 강화 등도 주문했다.

한편, 전국 17개 국립대 대학생들도 같은 날 ‘전국국립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및 ‘국립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원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 찾아간다

4~6월 설명회 잇따라 개최

고 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청 대학 입시 설명회가 언제 열리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고급 대입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수도권 10개 대학의 고교유형별·지역별·소득계층별 합격자 선발 결과, 영어 듣기평가 전환에 따른 학교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관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에서 대입 전략·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교육청 입시 설명회가 고마울 따름”이라는 학부모들도 많다.

2018학년도 대입 입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입 설명회가 광주·전남에서 잇따라 열린다. 대학별 설명회 뿐 아니라 교육청 주관 대규모 설명회도 잡혀있다. 대학 진학과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강대가 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여는 입학전형 설명회는 첫 대학별 설명회 자리로, 서강대의 2018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및 수능 최저기준 등급 적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EBS가 마련한 입시 전략 설명회가 8일부터 이틀간 목포·여수·순천에서 열린다. EBS는 8일 여수교(오전 10시)와 순천교(오후 3시)에서 수능대비 학습전략 및 EBS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9일 목포교(오후 3시)를 찾아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19일에는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수도권 16개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설명회가 잡혀있다.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에는 16개 대학 입학관계자들이 ▲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연세대·서울



광주교육청 온라인 상담 네이버 밴드

시립대·동국대·송실대 ▲고려·한국외대·국민대·단국대 ▲서울대·한양대·가톨릭대·광운대 등으로 나뉘어 전년도 수능 성적 합격선과 서류 전형시 주요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등을 전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의 수시모집을 겨냥한 대학입시 박람회도 5월 27일(목포 영흥고), 28일(순천여고) 열린다. 수도권을 비롯, 전국 40여개 대학의 전형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육·해·공사, 경찰대, 과학기술대 등 특수대학 입시설명회는 6월 21일 예정돼 있다. 6월 27일에는 6월 모의평가를 통한 수시 지원전략을 알려주는 설명회도 계획됐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 대학입시 박람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온라인 상담 코너인 ‘빛고을 공트러 진로진학 상담’란을 네이버 밴드에 오픈하는 한편, 100여명의 전문 교사들로 이뤄진 ‘진로진학지원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교육청도 최근 대입현장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대입 지원 활동에 나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대입 설명회 일정

4월 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서강대 입학전형
	오전 10시 여수교	전남도교육청·EBS 대입 설명회
	오후 3시 순천교	
4월 9일	오후 3시 목포교	
4월 19일	오후 1시 광주교육연수원	학부모 특강
	오후 3시~4시40분 중강당	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오후 5시~6시30분 중강당	고려·한국외대·국민대·단국대
	오후 5시~6시30분 대강당	서울대·한양대·가톨릭대·광운대
5월 26일	오후 1시 광주교육연수원	호남권 대입 설명회 (전남·조선대, 전북대 등 10여개 대학)
5월 27일	목포 영흥고	전남 대입(수시) 박람회(40여개 대학)
5월 28일	순천여고	
6월 21일	광주교육정보원	육·해·공사, 경찰대 등 특수대학 입시 설명회
6월 27일	광주교육정보원	6월 모의평가 결과 수시 지원전략
7월 22~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대학입시 박람회 (100여개 대학 참여)

대학 교육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국공립대교수·학생회 제안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회장 김영철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학 교육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도 함께 참여해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정책 당국은 자율화

와 선진화를 표방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질식시켰고 교육·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막대한 재정을 무익한 정책으로 탕진했을 뿐 대학 교육의 질은 더욱 부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학 교육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교수회는 또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국공립대 연구 역량 강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수회는 아울러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 ▲사립대 비리에 대한 국가 감독기능 강화 등도 주문했다.

한편, 전국 17개 국공립대 대학생들도 같은 날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및 ‘국립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마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